

(2) 제작과정

① 제 토

옹기 제작에 사용되는 점토를 채취하여 기물 성형과 소성 등에 적합하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② 성 형

질판장을 만들어 물레 위에 얹은 뒤 옹기 모양을 만들어내는 단계이다. 성형은 질판장 만들기, 물레 성형, 선문 장식 및 손잡이 부착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물레 성형은 흙바닥에서 만들어진 판장을 이용하여 기물의 형태를 완성하는 단계로 발과 손을 동시에 쓰면서 여러 가지 성형도구를 사용한다. 성형이 완성되면 기물의 외부를 장식하고 손잡이를 부착한다.

③ 건 조

성형한 기물은 유약을 바르기 위해 건조를 시키는데, 일광건조와 응달건조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④ 시유 및 시문

시유는 성형된 기물에 잿물을 입히는 작업이고, 시문은 굽과 전 닦기가 끝난 후 손가락으로 잿물을 밀어내며 문양을 그려나가는 작업이다.

⑤ 소 성

옹기를 만드는 마지막 과정으로 시유와 시문이 끝난 옹기를 가마에 넣고 굽는 단계이다. 가마에 기물을 넣고 나면 불을 지피는데, 본격적인 소성이 되면 가마 내부의 온도가 섭씨 1,000℃ 이상 올라가며, 그릇에 시유한 잿물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소성이 끝나면 5~6일 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가마문을 열고 옹기를 꺼낸다.

참고자료

김학주, 「좌도 영산가락에 대한 음악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87.

나병옥, 「전남지역 옹기의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7.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현라남도지』 제20권, 전라남도, 1995.

최덕원, 「남도농악 소고」, 『탐도민속고』, 삼상출판사, 1990.

최덕원, 「순천시의 민속」, 『순천시의 문화유적』, 순천대박물관, 199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5, 1991.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보고서』.